

나주시 '바로문자서비스' 소통 강화 제역할

윤 시장, 문자 검토 3일 이내 답장
시민 누구나 생활불편 사항 문자
2월 시행 105건 문자 메시지 접수
일상 생활 불편 민원 47건 '1위'

나주시가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바로문자서비스가 시민-행정 간 직통 창구 역할을 해내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이 시민들이 보낸 문자를 매일 검토해 최소 3일 이내 신속·정확한 답장으로 시민 소통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4일 나주시에 따르면 바로문자서비스는 지난 2월 도입했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시민 누구나 윤병태 시장 직통 문자 핸드폰(010-3147-8898)으로 생활 불편 사항, 정책 제안 등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면 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이 '시민 직소상담실 운영의 날'을 통해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문자는 윤 시장이 매일 직접 확인하며 담당 부서 검토를 거쳐 3일 이내 답장을 받아볼 수 있다. 시는 서비스 시행 5개월 차를 맞아 지금까지 총 105건의 문자 메시지를 접수했다. 생활 불편 민원이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책 제안, 제도개선 사

항 14건, 기타 44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무엇보다 소소하지만 시민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대처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주요 사례로는 대호동 호수공원 가로

등 고장, 정렬사 버스 승강장 수리 요청 민원의 경우 즉각적인 현장 확인 후 당일 수리 조치해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개선했다.

윤 시장은 바로문자 서비스와 더불어 올해 3월부터 시민과 눈을 맞추고 대화하는 소통 창구인 '시민직소상담실'도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운영하고 있다. 하반기 시민 직소상담실 운영일은 9월11일로 나주시청 누리집에서 12일부터 2주간 온라인으로 접수 예정이다.

윤병태 시장은 "바로문자 서비스는 신속한 민원 해결을 통한 시민 편의 개선은 물론 행정과 시민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좁히는 격의없는 소통 창구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금까지 시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개선해 삶의 질이 최고인 행복나주, 으뜸나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조대봉 기자



함평 돌머리 해수욕장 맨발 걷기 명소 급부상 사계절 관광 콘텐츠로 자리매김

함평군 돌머리 해수욕장이 최근 건강 맨발걷기 명소(슈퍼어싱길)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

4일 함평군에 따르면 함평읍 석성리에 위치한 돌머리 해수욕장은 길이 1km, 너비 70m로 광주시와도 가까워 근교 도시민들도 쉽게 찾아올 수 있다.

여기에 바닷길이 열리는 물때를 맞춰 방문하게 되면 약 600m의 슈퍼어싱길을 드디어 만나게 된다.

맨발걷기는 지면의 전자가 접지(earthing)효과로 인해 체내 활성산소를 중화하는 등 각종 질병을 치유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바닷가의 습윤한 지면이 일반 땅보다 접지 효과가 더 크다는 소식에 관광객들에게 바닷가 맨발걷기 인기가 더욱 높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맨발 걷기는 여름 개장 기간 이외에도 사계절 함평군에 방문객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주요 관광 콘텐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슈퍼어싱길을 비롯해 청정 갯벌, 붉은 낙조, 시원한 해풍이 기다리는 돌머리 해수욕장에서 시원한 여름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영광군, 휴가철 교통안전 캠페인

영광군(군수권한대행 부군수 김정섭)이 지난달 30일 하계 휴가철을 맞아 사고 없는 즐겁고 안전한 휴가철이 될 수 있도록 영광 군청 사거리 일대에서 군민 대상 교통안전 실천 캠페인을 실시했다.

4일 영광군에 따르면 이날 캠페인에는 영광군청 주관으로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시민경찰협의회 등 사회단체 관계자 70여 명이 함께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현수막과 소형 팸말, 어깨띠 등을 이용해 휴가철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음주·졸음·과속운전 방지 및 안전띠 필수착용 등 교통 수칙 준수에 대한 군민의 관심을 높이고, 6대 불법주정차 구역(횡단보도, 인도, 교차로, 소화전, 버스정류장, 어린이 보호구역)을 상기시키는 교통문화 정착에 동참하도록 유도했다.

군수권한대행 김정섭 부군수는 "2024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지역을 찾는 방문객과 영광군민 모두가 교통수칙을 잘 준수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

탄소중립 포인트제 가입 홍보 화순군, 신규가입자 1만원 지급

화순군은 8월 한 달 동안 생활 속 에너지 절약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인센티브를 받는 탄소중립 포인트제 가입 집중 홍보활동을 펼친다고 4일 밝혔다.

탄소중립 포인트제(에너지분야)는 과거 1~2년간 전기, 수도 등 에너지 사용량과 비교해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감축률 3% 이상이면 포인트가 지급되며 신규가입자에게는 1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가입 방법은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고객 번호를 확인한 후 탄소중립 포인트제(에너지 분야) 홈페이지(https://cpoint.or.kr)에서 가입하거나, 군청 환경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집중 가입 기간 동안 가입한 주민에게는 탄소중립 생활 실천 활성화를 위해 대화용 주방타올 등을 제공해 주민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화순=김선종 기자



영광군 관계자들이 지난달 30일 녹색어머니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사회단체 관계자 70여명과 함께 영광군청 사거리 일원에서 교통안전 실천 캠페인을 펼쳤다. 영광군 제공

구례군,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 지정

3년간 최대 100억 특별교부금 '스마트한 미래인재 양성' 목표

구례군이 지난달 30일 교육부로부터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 지정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4일 구례군에 따르면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의 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교육부 공모 사업이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3년간 30억 원에서 최대 100억 원의 특별교부금과 지역 맞춤형 특례 지원을 받게 되며 3년간 시범운영 후 평가를 거쳐 교육발전특구로 정식 지정된다.

구례군은 교육발전특구 비전을 '무한(無限) 신임(信任) 으뜸 구례교육'으로 정하고 3S 추진 전략인 Safety(믿고 말

기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Smart(스마트한 공교육 혁신), Special(구례형 차별화 교육)을 중심으로 보육·교육·진로·취업·정주가 선순환되는 전 생애 맞춤형 미래 교육 체계 구축을 목표로 설정했다.

시범 기간 운영될 세부 계획으로는 권역별 유보통합 운영 체계 구축, 사각지대 'zero' 권역별 늘봄체계 운영, 전 생애 통합 돌봄 실현(권역별 복합시설)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스마트한 미래인재 양성에도 나선다.

글로벌 구례 인재 양성 교육, 지역 기반 미래 생명 산업 인력 양성, 이주 배경 학생 정착 교육,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를 기반으로 하는 구례-도시 학생 융합교육과 공교육 혁신을 통해 구례의 청소년들이 미래 산업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스마트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할 예정이

다. 구례만의 차별화된 교육에도 주력한다.

글로벌 K-Food 전문학교(기숙형 특성화 대안(중)학교) 신설, 구례군-곡성군-담양군을 중심으로 특화푸드전문벨리를 조성하고, 구례 미래 교육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서 진로 적성 검사, 맞춤형 온라인 특화 교육과 평생 직업교육 확대 및 전문화된 권역별 교육 체계를 통해 구례형 차별화 교육과 지역인재 정주를 지원하여 지역 소멸 위기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 지정에 노력해 주신 교육부,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 전남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다"며 "지역 전체가 함께하는 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재 양성-취업-정주를 아우르는 선순환 발전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구례=김상현 기자

영광군, 여성문화센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영광군은 다양하고 수준 있는 문화강좌 향유와 배움에 대한 욕구 충족을 위하여 2024년 하반기 영광군 여성문화센터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개설 강좌로 여성을 위한 취업·창업 프로그램 티블렌딩전문가(2급), 풍선아트 지도사(1급), 동화심리상담사(3급) 과정과 취미·교양 프로그램, 당구, 이마옴케어(컷트), 시인학교, 풋살, 명리학·관

상, 꽃꽂이, 화서각, 영상촬영 및 편집, 망고실자이언트안가방만들기 2개 분야 12개 과정을 하반기에 운영한다.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여성이면 누구나 수강신청이 가능하고 오는 12일부터 28일까지 '영광군 여성문화센터(061-353-5253)'에서 선착순 방문 접수를 받는다. 영광=김도윤 기자

영광 다자녀 행복카드 지원 확대 막내 기준 18세·2자녀 기준 태아

영광군은 '전남 다자녀 행복카드' 발급 대상 기준을 막내(태아 포함)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으로 완화하고 가맹점 확대를 위해 가맹점이 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전남 다자녀 행복카드는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전남도와 농협이 협약을 맺어 운영 중인 사업이다.

전남 다자녀 행복카드 이용 혜택으로는 △백화점 및 대형할인점 5% 할인 △GS칼텍스 주유소 이용 시 리터당 50원 할인 △카페/베이커리 전문점 (스타벅스, 커피빈, 파스쿠찌 등) 5% 할인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50% 할인(에버랜드 등) △학원업종 7% 및 병원(병원·의원·한의원)업종 5% 할인 △다자녀 행복카드 협력가맹점 추가 할인 등이다.

병·의원, 음식점, 이·미용업, 숙박업 등 모든 제조·서비스업이 가맹점 대상에 포함되며 인증스티커 부착, 카드 수수료 전액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전남 다자녀 행복카드 발급을 원하는 군민은 본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가까운 농협(농협중앙회 및 단위농협)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규 가맹점 가입을 원하는 사업장은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가까운 읍·면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영광=김도윤 기자